

예대마진 줄고 금리인상까지… 저축銀, 상반기 성적 ‘부진’

주요 5곳 순이익 3641억, 26% ↓
OK저축銀 54.8%, 감소폭 가장 커
예대마진 격차 줄면서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 악재 산재

을 상반기 저축은행의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반의 악재 탓이다. 하반기 실적 기상도도 ‘흐림’이 예상된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36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 격차가 좁혀진 탓이다. 하반기에도 또 다른 악재가 겹쳐 순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주요 저축은행 5곳의 순이익은 ▲SBI저축은행(1777억원) ▲OK저축은행(679억원) ▲웰컴저축은행(51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369억



올 상반기 주요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하반기 실적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스

원) ▲페퍼저축은행(2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이외 4곳 저축은행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 폭이 가장 적은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8.2% 줄었다.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OK저축은행으로 54.8%나 줄었다. 이밖에 웰컴저축은행은 26.6% 감소했고, 페퍼저축은행은 20.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순이익이 67%나 급증한 것에 비해 올해는 크게 감소했다.

우선 예대마진 격차가 좁혀졌다. 대출 금리를 인상한 만큼 수신 확보를 위해 수신 금리 인상도 함께 단행한 것. 실제로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파킹통장, 적금통장 등의 금리를 높이는 예금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갔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격차가 좁아졌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순이익 감소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상반기에 낸 먹구름은 여전한 가운데 새로운 악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시중은행 또한 수신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경쟁

을 위해 저축은행 또한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상반기 순이익 감소를 불러온 예대마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이 저축은행 차주의 이탈을 부를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이란 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부채 감면 및 대출 지원 정책이다. 취약차주의 금리와 순부채 감면 혜택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연9%로 금리를 조정해 준다.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다수가 저축은행 차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상 평균금리 15%를 웃도는 저축은행 차주들의 대환대출이 불가피한 것. 결과적으로 수신비용은 오르지만 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악재가 이어지지만 저축은행 업계도 건전성 확보와 수익 통로 다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한국은행, 추석 자금 방출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車보험 이익 역대 최대… 보험료 인하되나

상반기 6264억, 전년比 2127억 ↑
손해율 77.1%… 5년來 최저 수준
금융당국 “보험료 인하 조정 유도”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에서 거둔 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양호한 영업실적과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5일 내놓은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에서 거둔 영업 이익은 6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7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p) 하락했다. 2017년 기록한 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엔데믹 기조에도 사고율이 하락하면서 손해액이 전년 대비 755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자동차 가입대수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3612억원 증가한 것도 손해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 수보험료 기준)는 10조3731억원 수준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약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엔데믹 이후 자동차 운행량 증가로 사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손해율이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낸 전년 동기(79.4%)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도 지속되고 있다.

대형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

B손보·KB손보)의 시장점유율은 84.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온라인 시장 확대로 캐롯손보 등 온라인사의 점유율도 전년 대비 0.8%p 가량 늘어난 6.1%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상반기 10.3% ▲2021년 상반기 9.6% ▲2022년 상반기 9.1%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각사별로 영업손익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악사손보 등 8개사는 흑자를 기록했고 MG손보, 흥국화재, 하나손보, 캐롯손보 등 4개사는 영업손실을 냈다. 가장 큰 이익을 낸 곳은 삼성화재(2146억원)였고,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한 곳은 캐롯손보(-304억원)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B국민은행-신한은행, 공동점포 문 열어

경기 양주·경북 영주에 개점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과의 공동점포 도입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과 함께 경기도 양주,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공동점포를 개점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 공동점포는 시중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고객의 대면채널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양주 고읍과 영주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100m 내 근거리에서 영업점을 운영해왔던 지역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동점포는 KB국민은행의 양주 고읍점, 신한은행의 영주점점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KB-신한 공동점포는 동일 점포 내 창구, 금고 등 양은행이 개별 영업에 필요한 공간은 별도로 운영하고 객장, 자동화코너, 주차장 등 고객 이용 공간은 신한은행과 공유한다. KB국민은행은 양주고읍점 5명, 영주점 6명의 직원을 배치해 ▲여수신 ▲외환 ▲금융투자상품 가입 등 일반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 시간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SC제일은행, 수시입출식 통장 금리 인상

‘제일EZ 통장’ 최고 연 2.5%

SC제일은행이 비대면 전용 수시입출식 상품 ‘제일EZ 통장’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올려 최고 연 2.5%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첫 거래 고객에게 하루만 맡겨도 6개월간 최고 2.5%(이하 연, 세전)의 금리를 준다.

제일EZ 통장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일별 잔액에 대해 연 1.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며, SC제일

은행과 처음 거래할 경우 별도 조건 없이 1.5%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최고 연 2.5%를 제공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自動화기기 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NH농협銀, 추석 맞아 휴게소에 이동점포

NH농협은행이 성남유통센터와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신권 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이동객을 위해 농협 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NH원스(NH

Wings)’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NH 원스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를 탑재한 차량형 이동점포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